



금쪽 같은 육아 대통령

얼마 전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가 90분에 81만 원으로 너무 고액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10분당 9만 원이라...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 무척 고가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훌륭한 전문가에게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3대 해결사로 불리고 있는 스타가 아닌가? (백종원은 요식업 대통령, 강형욱은 개통령, 오은영은 육아 대통령)

상담료뿐만 아니라 그녀가 최고급 브랜드 에르메스 VVIP라는 사실도 논란이 되었는데 기사를 보며 솔직히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던 시장에서 보세 옷을 사 입든 내 관심 밖에 일이다.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본인의 능력에 맞게 소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 이웃 아주머니 같은 소탈하고 수수한 그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어찌고 저찌고 토로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녀가 이룬 부와 능력이 부러워서 푸념을 토해내는 것은 아닐까 싶다.

고가의 상담비 문제도 그렇다. 그 상담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상담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이다.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네, 그 정도 실력은 아니네, 그런데 알고 보니 에르메스 VIP였네... 하는 맥락 없는 비난은 부적절하며 뭔가 웅중하고 짜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채를 끌어다가 명품 옷을 해 입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능력껏 의식주를 누리겠다는데 그걸 무자정 횡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는 SBS에서 10년 넘게 방영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때부터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지켜 봤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맞는 말만 조목조목 조리 있게 설명하는 그녀의 능력은 분명 놀라웠고 감탄할 만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 육아가 그녀의 조언처럼 뜻대로 안 될 때면 뭔가 그녀에게도 허점이 있기를 바라는 속된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 '이 분이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본인 자식의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교과서처럼 해낼 수 없을 거야. 전문가들의 육아서적이거나 조언들이 가끔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지 않은가. 당신처럼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 서민 엄마의 치열하고 고달픈 육아를...' 이라고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핑계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TV 속에서 던진 그녀의 조언들이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나도 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육아 대통령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참고했었고 그때 가장 공감하며 깨달은 것은 부모의 언행은 항상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금까지도 꽤 잘 지켜왔고 남이 봤을 때 다소 매물찬 엄마로 보일 망정 아이들이 부모의 애매한 육아 방식 때문에 갈광질 광하는 일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요즘 채널A에서 방영하는 "금쪽같은 내 새끼" 역시 형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어쩌면 저래?" 싶을 정도의 문제 아이가 등장하고 전문가가 아이의 문제와 원인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늘 문제의 원인은 하나같

이 부모. 부모한테 쌍욕 하는 아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무곳에서나 드러눕고 소리 지르는 아이, 도벽 있는 아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아이 등등 정말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던 아이들도 부모가 변화자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방송은 마무리된다.

가끔 나도 육아에 지치고 답답할 때 오은영 박사를 내 앞으로 소환해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라고 묻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바쁜 분이셔서 감히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상담료가 10분당 9만 원이라는 사실까지 안 이상 더더욱 상담을 의뢰할 일은 희박해진 것 같다. 그래도 "금쪽같은 내 새끼"는 계속 열심히 시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에르메스 VVIP라는 육아 대통령의 패션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플리톤 단독 주택
방4 화3
6500sqft 대지
\$575천

플리톤 단독 주택
방 3개 화1
6800sqft 대지
\$55만

플리톤 타운홈
최고의 학군
초중고 도보거리
방2 덴1 화2
\$49만

라하브라 타운홈
방 2 화 2 1100sqft
전체 마루
뒷마당 있는 타운홈
\$575천

부에나팍 타운홈
방1 화1 마당있는 타운홈
전체 마루, 한인마켓 도보 거리
낮은 HOA, Turn Key
\$45만

부에나팍 2016 타운홈
방2 덴1 화2.5 1721sqft
Turn Key, 렌트비 잘 나오는
투자용 아주좋은 매물
\$709천



부에나팍 타운홈 739천



리버사이드 2유닛 49만불

방 3개 화 2.5개 1721 sqft 2015년
보시면 바로 사랑에 빠지실 매물입니다. 넓은 거실,
넉넉한 수납공간의 부엌, 부에나 팍 유명 소스를 건너편

렌트 수익 좋은 방2 화1, 방1 화1

사우스게이트 4유닛
자세한 내용은 문의
\$100만

성업 중인 햄버거 가게
포텐셜 아주 넘치는
한달 순수익 12천
\$10만

에버인 타운홈 렌트
깨끗한 새집, 새로 리모델링 한집
방 2개 화 3개
*학군 좋은 곳
\$2,8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